

한옥 정책 및 산업화 연구지원사업 - 한옥정책개발 지원 연구

해 외 출 장 보 고 서

2012. 12. 10 ~ 12. 14

일본 교토, 도쿄, 가와고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2012. 12.

출 장 자

심경미 부연구위원, 진태승 연구원, 최은숙 연구원

■ 목 차

I. 출장개요	1
1. 출장개요	1
2. 출장목적	1
3. 주요 업무수행 내용	1
4. 출장효과	3
II. 주요기관 방문 면담내용	4
1. 교토시 경관·마치즈くり 센터(京都市景観・まちづくりセンター)	4
2. 국토교통성 도시국 공원녹지경관과	10
3. 도쿄 가구라자카 마을만들기협의회(NPO粋なまちづくり倶楽部)	13
4. 가와고에 협의회	15
III. 현장답사 사진	18
1. 헤이세이 교마치야	18
2. 교마치야 : 하타케 주택	21
3. 교토 전통적건조물 보존지구 : 산넨자카니넨자카 지구	22
4. 도쿄 근대건축물 보존·활용 및 역사경관마을 사례	24
1) 마루노우치 지구	24
2) 가구라자카 역사경관마을	27
5. 가와고에 쿠라즈くり 전통가옥 거리 및 다이쇼로만 유메도리 거리 ·	29
1) 쿠라즈くり 전통가옥 거리	29
2) 다이쇼 로만 유메도리 거리	31

I. 출장개요

1. 출장개요

- 과제명 : 한옥 정책 및 산업화 연구·지원사업-한옥정책개발 지원 연구
- 출장지 : 일본 교토, 도쿄, 가와고에
- 출장기간 : 2012. 12. 10(월) ~ 12. 14(금), 4박 5일
- 출장자 : 심경미 부연구위원, 진태승·최은숙 연구원

2. 출장목적

- 일본의 건축자산 및 역사경관 보전·관리 정책 파악
 - 중앙정부의 건축자산 및 역사경관 관련 정책방향 및 법·제도 현황 조사
 - 정책 추진 지원체계 및 관련 조직의 역할 조사
 - 정부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 조사
- 일본 전통 및 근대건축물 보전·관리·활용 사례 조사
 - 전통건축물보존지구 사례 조사
 - 도심 내 건축자산 보전·활용 현황 조사
 - 건축자산 보전·관리를 위한 주민참여 및 민관 협력 사례 조사

3. 주요 업무수행 내용

- 일본의 건축자산 및 역사경관 보전·관리 정책 파악을 위한 기관방문 및 면담
 - 일본 국토교통성 공원녹지경관과 방문, 면담
- 일본 전통 및 근대건축물 보전·관리·활용 사례 답사 및 면담
 - 가와고에 전통가옥 거리 답사 및 가와고에 협의회 방문·면담
 - 교토 교마치야 보전·관리 사례 답사, 교토시·마치즈쿠리 센터(NPO) 방문·면담
 - 도쿄 경관마을 및 근대건축물 보전사례 답사 등

[표1-1] 출장 일정

일 자	현지 시간	방문도시	계획 일정	비고
12.10 (월)	10:00	-	출 국	
	16:00 ~18:00	교토	일본형 신한옥 보급사례 답사 (헤이세이 교마치야 견본주택)	
12.11 (화)	09:00 ~12:00		교토시 마치야 담당자 및 마치즈쿠리센터 담당자 방문, 면담	
	13:00 ~18:00		교마치야 보전·재생사례 답사 (산넨자카, 니넨자카 일대) 전통건축물 보전사례 답사(하타케 주택)	
12.12 (수)	09:30 ~12:00		도시간 이동	
	14:00 ~19:00	도쿄	역사적 건축물 보전·활용사례 답사 (동경역사, 마루노우치, 긴자 일대)	
12.13 (목)	09:00 ~13:00		도쿄 가구라자카 역사경관마을만들기 사례, 마을만들기협의회 방문·면담 및 답사	
	15:00 ~17:00		국토교통성 방문, 면담 (도시국 공원녹지경관과)	
12.14 (금)	09:00 ~15:00	가와고에	가와고에 전통가옥 보전지구 답사 및 가와고에 협의회 방문, 면담	
	19:00 ~21:40	-	입 국	

※ 헤이세이 교마치야 견본주택이 3개월 전에 개장하여 교토일정 중 현지 전문가의 추천에 따라 기온지구 답사 대신 신한옥 정책과 부합하는 헤이세이 교마치야 견본주택 방문

4. 출장효과

-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선진사례 조사
 - 국토해양부에서 입법 추진하고 있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선진사례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기여
 - 일본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건축자산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전통건축물군, 근대건축물, 역사문화경관의 보전·관리·활용·관광자원화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보전·관리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기존 한옥의 보전·관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시사점 도출
 - 마치야 및 역사마을 보전·관리 사례 조사를 통하여 기존 한옥의 보전·관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 건축자산과 경관의 보전을 위한 다양한 주체(일본 중앙정부, 지자체 행정기관, 지역주민, 시민, 전문가 등)의 협력체계를 파악하고 역사문화를 활용한 마을만들기(마치즈쿠리) 프로그램을 조사함으로써 한옥 보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적인 실천방안 마련의 시사점 도출

II. 주요기관 방문 면담내용

1. 교토시 경관·마치즈くり 센터(京都市景観・まちづくりセンター)

- 일 시 : '12.12.11(화), 10:00
- 장 소 : 교토시 경관·마치즈くり 센터
- 참석자 : 교토시 경관정책과 오카다(岡田) 기획계장, 경관·마치즈くり 센터 직원

1) 교토시 경관·마치즈くり 센터 개요

- 교토 마치즈くり 센터는 교토시의 자본지원으로 설립한 재단으로 행정 기관과 주민사이에 일어나는 마을가꾸기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립됨
- 본 센터는 마치야 보전·재생, 마을경관만들기 등 마을가꾸기를 위하여 행정, 주민, 전문가, 기업 등을 다양한 주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의사결정 회의와 주민교육 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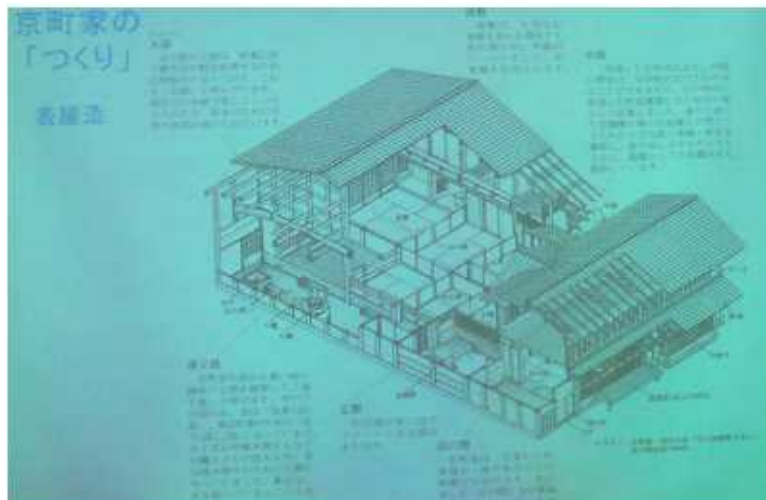
[그림 2-1] 교토시 경관·마치즈くり 센터 내부 및 교육자료

2) 회의내용

□ 센터의 역할

- 지역 마치즈쿠리 활성화 및 촉진 및 지역 토지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교육·상담·지원을 함
- 센터 코디네이터는 대학 졸업 후 2년 이상 마치즈쿠리 경험이 있는자 또는, 대학원에서 2년 이상 마치즈쿠리 연구경험이 있는 자가 지원가능하며 1년단위로 계약하여 최대 5년까지 복무 가능
- 센터에서는 교마치야 재생 세미나 등 주민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

□ 교마치야란?



[그림 2-2] 교마치야

-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도시형 한옥’으로 에도시대 중기에 건축되기 시작한 교토의 특징적인 건축물
- 특징 : 목구조, 기와, 전면의 넓은 출입구, 벽면의 격자무늬, 흙벽, 안쪽에 정원이 2개 위치하는 구조(규모에 따라 정원을 생략하기도 함)이며, 전면 1층 부분을 상가로 사용하고 2층과 후면을 주택·창고로 사용

□ 교마치야 현황조사

- 교마치야는 3기에 거쳐 현장·추적·양케이트 조사를 하여 그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음
- 첫 번째 조사는 3년에 거쳐 교마치야의 보존 필요성을 느낀 주민들의 자원봉사로 시행되었음.

1기 _ 73,000채	2기 _ 53,000채	3기 _ 47,000채
-(주체) 시민(자원봉사) -(방법) 현장조사 -(범위) 일부 중심지역	-(주체) 교토시 -(방법) 현장조사, 추적조사 -(범위) 일부 중심지역	-(주체) 교토시 -(방법) 현장조사, 양케이트조사 -(범위) 교토시 전역

□ 교마치야 마치즈쿠리 펀드

- (설 립) 교마치야 보전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 5,000만엔을 기부하여 펀드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교토시, 일본 정부가 지원하고 시민들이 기부하여 총 1억 5천만엔으로 최초로 설립됨
- (사 업) 펀드로 시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교마치야 개수 시 공사비의 50%를 지원
 -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준의 마치야를 공적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개수사업에 지원
 - 에어컨의 실외기를 가리는 등 환경정비사업에 지원
 - 교마치야 건강진단서(교마치야 카르테) 작성사업
- (재 원) 현재 펀드의 재원은 다음과 같음
 - 지역 신용카드를 만들어 카드 사용금액의 일부를 펀드에 축적
 - 일부 자동판매기 판매금액의 일부를 펀드에 축적
 - '마치즈쿠리 바나나'를 상품화 하여 판매금액의 일부를 펀드에 축적
 - 특산품 간식을 상품화 하여 판매금액의 일부를 펀드에 축적
 - 해외에 홍보하여 기부금(world monument fund)을 받아 펀드에 축적

□ 교마치야 카르테

- 교마치야 카르테는 전통적인 주택의 이력서로서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고, 건물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재산으로서 소중히 지켜져 온 교마치야의 가치를 ‘기초정보’, ‘문화정보’, ‘안심안전정보’라는 세 가지 정보로 정리
 - 기초정보에는 교마치야 마치즈쿠리 조사의 결과 개요와 학구(學區)정보 등, 해당하는 교마치야에 관계된 기초적인 정보가 포함
 - 문화정보에는 ‘문화리포트’라고 하는 형식으로 간단하고 쉽게 지역의 유래나 연혁 등의 정보가 포함
 - 안심·안전정보에는 ‘교마치야 현황평가’라고 하는 형식으로, 건물상태에 대해서 7가지 항목에 따라 조사를 실시, 도면을 작성
- 철거에 대한 규제사항은 없으며, 철거되는 건축물에 대한 아카이빙은 하지 않고 있음
 - 다만, 건축물 주인의 자원으로 교마치야 카르테를 작성하여 자신의 집에 대한 이력을 알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함

〈기초정보〉

〈문화정보〉

〈안심·안전정보〉

[그림 2-3] 교마치야 카르테 조사양식

□ 방화조례

- 지구계획 등을 통해 방화도로(4m 이상 도로) 확보 등 방화관련 사항을 완화하는 대신, 경관을 보전하도록 함
- 방화조례는 기온마찌 미나미가와 지역에만 적용되며, ‘준방화조례’는 일정규모이상 마찌야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음

□ 교마치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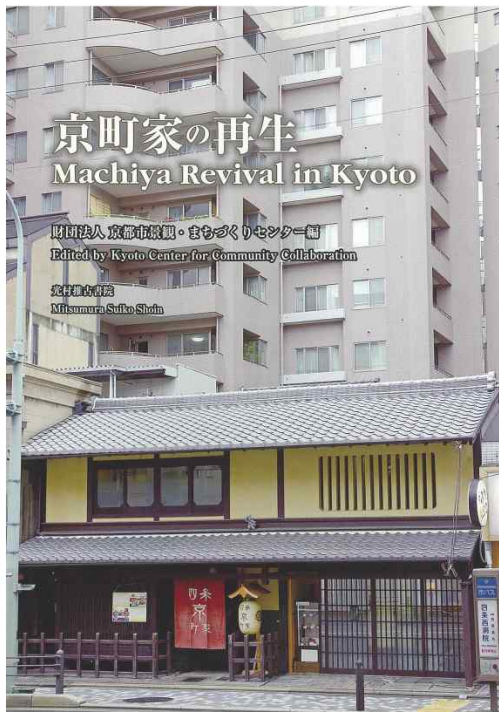
- 지원대상은 국가와 교토시가 역사적·경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
 -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으며, 실질적인 지원은 지자체에서 부담
- 센터에서는 교토에 위치한 교마치야 모두에 지원(개별 마찌야와 전통 건조물보전지구 내 마찌야 모두 지원)
 - 센터에서 지원하는 건수는 연도별 10건에 그침(현재 총 48000채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

□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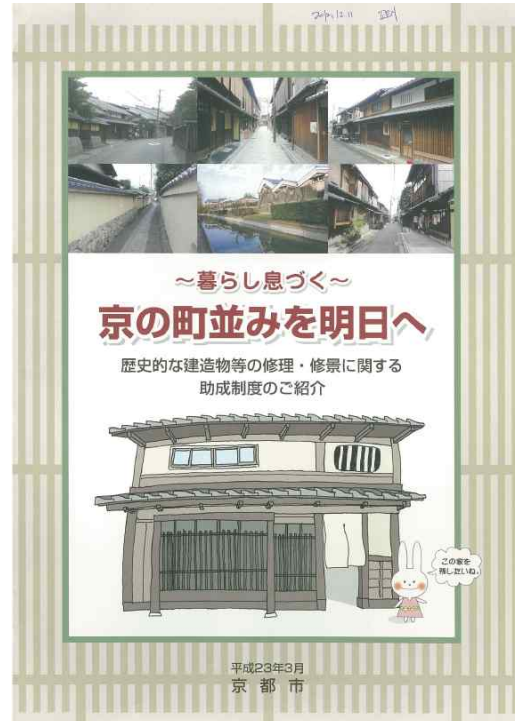
- 교마치야 건축관련 산업은 예전부터 자생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음
 - 인력또한 현재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나 민간조직에서 자체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전문가(장인)가 대를 이어 육성하고 있어 따로 자격제도나 인력양성사업은 실시하지 않음

3) 구독자료

○ 교마치야 재생사업 사례집



○ 교마치야 개수 등 안내 브로셔



○ 교토시 경관まちづくり홍보 브로셔



○ 교마치야 개수 안내책



2. 국토교통성 도시국 공원녹지경관과

- 일 시 : '12.12.13(목), 15:00
- 장 소 : 국토교통성
- 참석자 : 공원녹지경관과 경관·역사문화환경정비실 카게야마 계장, 토미도코로 계장, 준이치 실장 등

1) 국토교통성 도시국 공원녹지경관과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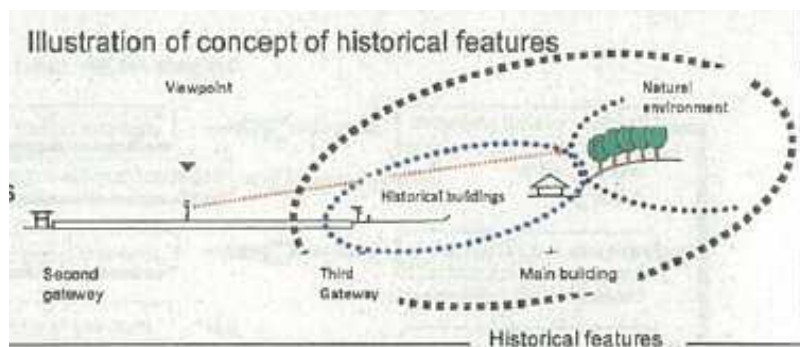
- 국토교통성 내 역사마을만들기, 고도보존 등 역사경관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

2) 회의내용

☐ 관련법규

- 규제 목적의 법 : 문화재보호법(1950), 건축법, 경관법(2004), 고도보존법(1966)
- 지원 목적의 법 : 역사적만들기법(2008),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법(1975), 전선 공동구 특례법

☐ 고도보존법



[그림 2-4] 고도보존법의 개념

- 고도의 역사적 풍치와 고유한 문화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제정
 - 고도 : 교토, 나라, 카마쿠라
- 역사적 풍치는 역사적 건조물, 주요 건조물, 자연환경을 모두 포함

□ 역사적 마을만들기법

-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지역의 경관(역사적 건축물) 보전을 목적으로 제정
 - *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는 면단위 보전이 목적
 - 지역을 지정하고 활동·이벤트·생활 등을 역사적 풍치로 지정하여 관리·지원
 - 역사적 건조물로 지정되면 「경관법」 보다는 느슨하지만 현상 변경시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하며, 전통문화청의 지원이 가능함

□ 경관법

- 경관주요건조물 : 비문화재중에 경관적으로 중요한 건축물에 지정
 - 외관, 식재 등을 행정에 의해 규제하고 건축법 완화 및 세금감면

□ 전선공동구 특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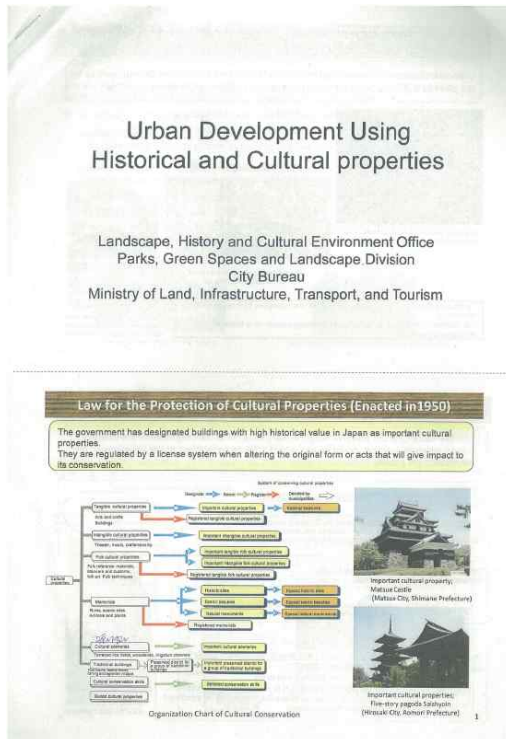
-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기준을 완화해서 역사지구에서 특례가 적용되도록 함

□ 문화재보호법

- 일본은 문화재보호법에 전통적건조물군 보존지구 제도가 있어 성시, 여관마을, 전통가옥 및 상점 등이 밀집한 역사적인 취락과 경관을 보존할 수 있게 함
- 지구내의 보존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자체 보존 조례에 근거해 보존계획을 정함.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중요전통적건조물 보존지구로 선정하여 관리
- 중요전통적건조물 보존지구의 경우 이의 보존을 위해 문화청에서 시읍면이 실시하는 수리·수경·방재 사업 등에 대해 경비를 보조하고 필요한 지도·조언을 실시함. 지구내의 건조물 소유자 등에게는 조세 혜택 등이 지원되고 있음

3) 구독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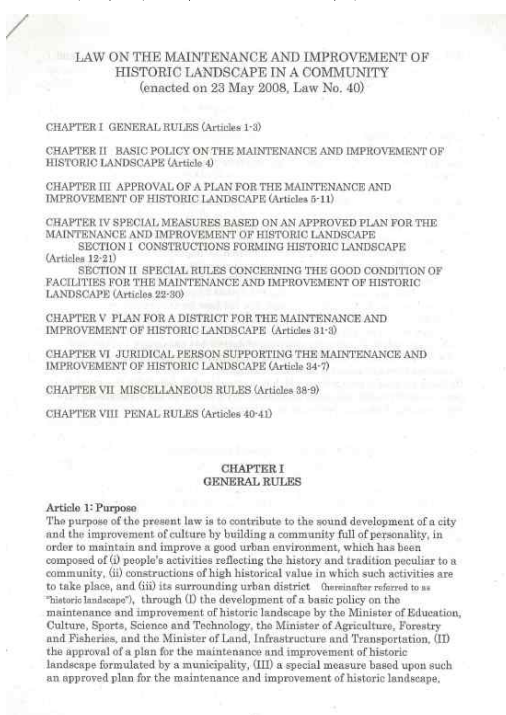
○ 일본 역사보존 관련 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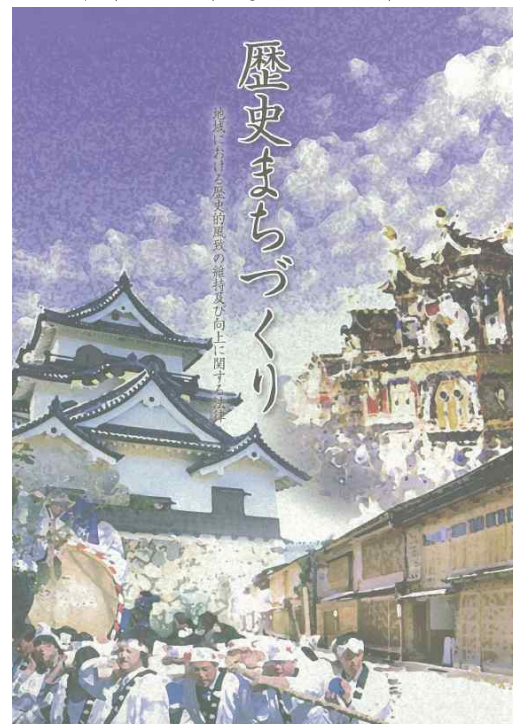
○ 교토시 역사적 풍치향상계획



○ 역사적 마을 만들기법



○ 역사만들기 홍보브로셔



3. 도쿄 가구라자카 마을만들기협의회(NPO粋なまちづくり倶楽部)

- 일 시 : '12.12.13(목), 10:00
- 장 소 : 가구라자카 마을만들기협의회 사무실
- 참석자 : 야마시타 케이(협의회 사무국장)

1) 도쿄 가구라자카 마을만들기협의회(NPO粋なまちづくり倶楽部) 개요

- 가구라자카 마을만들기협의회는 1993년 지역 유지들이 주축이 되어 자체적으로 결성하고 마을만들기를 위한 워크숍과 전문가 자문 등을 시행하여 '마을만들기 방침'과 '전통과 현대가 접하는 멋진 마을 가구라자카'를 목표로 하는 현장을 작성하였음
- 본 마을만들기협의회를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협정 체결, 국토교통성 가로환경정비사업, NPO 멋진 마을만들기 클럽 설립 등이 이루어져 과거와 현대를 잇는 마을만들기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2) 회의내용

☐ 마을의 역사

- 가구라자카는 전통적인 경관을 간직한 마을로 에도시대에 만들어져 다이쇼·쇼우시대까지 번성하였음. 관동대지진에도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아 백화점 등이 들어서며 서부 도쿄의 최대의 변화가였으나 세계 2차 대전때 마을이 전소되었음.
- 이후 동경은 큰 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했는데, 가구라자카는 동경을 순환하는 지하철(우리나라 서울의 지하철 2호선과 같은) 중심에 위치해 있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점차 타 지역의 개발에 밀려 쇠락하였음.
- 그러나 1988년 신주쿠 구가 가구라자카를 마을만들기 추진지구로 지정하여 지구재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 가구라자카는 고층 건물의 급증과 유서깊은 점포 폐업에 대응한 경관 보존 운동과 가로환경정비사업, 지구계획 지정 등을 통해 고유한 경관을 보존하여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재조명 되고 있는 지역임

□ 협의회 조직 및 범위

- 협의회는 임의단체로 자치단체, 상인회, 상점가회를 합쳐서 5~6년 전에 만들어짐
- (조직) 총 25명의 정회원(도시, 지역, 행정 전문가)과 몇 명의 고문(교수 등)로 이루어져 있음
- (범위) ‘도쿄도 신주쿠시 가쿠라자카 1동~6동

□ 협의회가 하는 일

- 마을 만들기의 비전을 책으로 발간하였으며 그 내용은 지역의 역사·문화·상업 뿐만 아니라 지역에 사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는 개념이 담겨있음
 - ‘가쿠라자카 다운’ 품격있는 도시 만들기 : ‘가쿠라자카 다운’은 주로 도시조직(골목길)을 보전하는 것임
- NPO가 협의회에 들어와서는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골목길 살리기 운동과 함께 골목길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시작
 - 골목길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현황(좁은 도로, 화재에 취약한 목조건축)이 위험하다는 행정기관의 주장에 대해 학술적으로 위험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골목길 보전을 주장

□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보전

- 일본은 10년전 「도시계획법」이 일정규모 이하이면 지역 면적의 70% 이상 소유주가 찬성할 경우 주민이 만든 지단을 행정기관이 수립하도록 개정됨
 - 가쿠라자카는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주민주도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됨
-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방화도로를 완화하여 골목길 및 전통건축물을 보전할 수 있었음
 - 가쿠라자카는 골목에 소방차가 안들어가도 호스를 끌고 들어가서 불을 끌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골목길 보전이 가능했음(골목길 조사를 통해 증명)

4. 가와고에 협의회

- 일 시 : '12.12.14(금), 12:00
- 장 소 : 가와고에 협의회 사무실
- 참석자 : 요시자키마사아키(가와고에 일번가 협의회 이사장)

1) 가와고에 협의회 개요

- 가와고에 협의회는 1960년대부터 구시가지가 쇠퇴하면서 역사적인 도시로서 한 때 위기를 맞이하자 젊은 상점주인, 건축 또는 마을만들기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시청 직원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든 것으로부터 시작하였음
- 2002년에 NPO 법인으로 만들어졌으며 상점 운영자나 지역주민, 건축가 및 마을만들기 전문가, 사이타마현 및 가와고에시 직원, 일반 시민 등 약 2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협의회는 마을만들기 디자인활동, 빈집이나 상가 등 역사적인 건물을 이용한 이벤트 개최, 전통적건축물 보존활동 등 구도심의 문화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2) 회의내용

☐ 역사

- 에도막부 시대 성하마을로 에도랑 연결되는 강이 있어 상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음. 이에 따라 돈 많은 상인이 큰 창고(쿠라)를 건설하여 많을 때는 300여개까지 건축되었음(현재는 30개)
- 하지만 '쿠라'는 벽이 두꺼워 공간 효율이 좋지 않고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철거 후 근대건축물로 바뀌기 시작함. 이후 1940년대 쿠라 찌꾸리와 3km 떨어진 지역에 가와고에역이 생기고 역 주변이 발전함에 따라 이 지역이 쇠퇴됨
- 지역이 쇠퇴되어 '쿠라' 소유주들은 돈이 없어 '쿠라'를 부수지 못해 현재 우현히 남아있는 것들을 보존할 수 있게 됨

- 1980년대 초에 ‘쿠라’를 지키자는 인식이 생겨나고 1983년 ‘쿠라를 지키는 모임’이 창설(시청관계자, 건축전문가, 상인) 되었으며, 1987년에는 1번가(메인도로) 상인들을 중심으로 가로경관 위원회가 창설됨

□ 보존운동

- 1983년 ‘쿠라를 지키는 모임’의 활동으로 ‘쿠라’ 보존은 성공적으로 되었으나 상업 활성화가 되지 않아 모임에서 상인들이 빠져나가고 건축 전문가 위주의 모임이 됨
 - 가와고에는 1987년 일본의 유명 드라마의 무대가 되면서 마을이 알려지기 시작하여 활성화됨
- 1999년 ‘중요건조물군 보전지구’로 지정되면서 ‘쿠라’보존이 강제력이 생기기 시작하였음
 - 현재 총 30개 ‘쿠라’ 중, 시 문화재 16개, 국가 문화재 1개가 있으며 나머지 13개 ‘쿠라’는 중요건조물군 보전지구에 의해 시에서 지원하고 있음
 - 도로는 도에서 지원하여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쿠라’ 개수비는 시에서 지원



[그림 2-5] 문화재인 ‘쿠라’

□ 가와고에 협의회 역할

- 관광지이나 저녁에는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고 거리에 사람이 없어서 저녁에 하는 행사, 일주일에 한번 야간개점 등을 기획
- 가와고에의 역사보존은 건축물 보존 뿐만아니라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협의회에서는 좋은 상품을 팔기위한 상인들 대상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간접적으로 지역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질을 관리
- 가이드라인 작성 : 건축물을 짓거나 개수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서점에서 판매중
 - 향후 용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추가하기 위해 노력 중
 - * 지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임대료가 상승하고 더 이상 건물 소유주가 장사를 하지 않아 지역문화와 맞지 않은 용도가 거리에 들어오고 있으나, 용도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제하지 못함


□ ‘쿠라’ 때문에 지역이 활성화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지역이 상업화되다 보니 지역상점(정육점, 세탁소 등)이 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임

3) 구득자료

○ ‘쿠라’ 설명자료

Kurazukuri - Clay-Walled Stores

In the past it is said there were more than 200 clay-walled stores in Kawagoe City. Now there remain only about thirty. However the 10 or so facing the main street as it passes through the north part of Kawagoe provide a scene from the past found in few cities in Japan today. To preserve there a few remaining "kurazukuri," clay-walled stores, 16 of them were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by Kawagoe City 1982.




One of the oldest clay-walled stores in Kawagoe was built in 1792. Known today as the Ohawwa family dwelling, it was designated an Important Cultural Property by the federal government in 1971 because it represents one of the few such buildings left in Japan from that peri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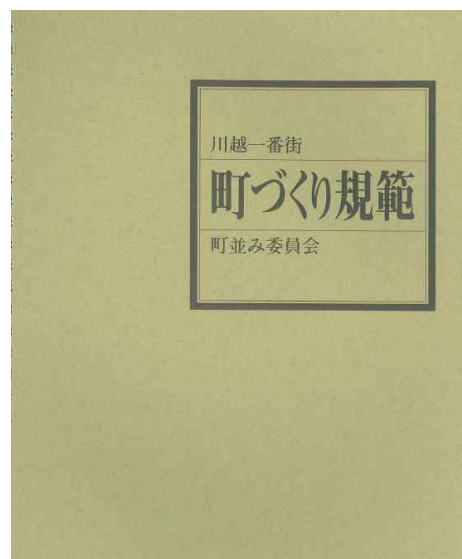
Clay-walled construction was used both to make a structure fireproof and to make it secure against intruders. Such a method of construction was used in Japan not only to make kurazukuri, but also to make storehouses, example of which can be seen in and around Kawagoe.

Most of the clay-walled stores left in Kawagoe were built during the Meiji period (1869-1912). It was during that period, in 1893, that a large fire destroyed a major portion of central Kawagoe. The few buildings that survived were of clay-walled construction, including the kurazukuri now called the Ohawwa family dwelling, which encouraged the merchants in the area to rebuild in this style.

The architectural flavor of these shops reflects the style popular in Edo, now Tokyo. In fact, Kawagoe today has the largest concentration of Edo-style kurazukuri remaining in the Kanto area. Many kurazukuri in Tokyo were destroyed during the Great Kanto Earthquake and resulting fire in 1923.



○ 가와고에 가이드라인



III. 현장답사 사진

1. 헤이세이 교마치야

- 헤이세이 교마치야는 우리나라의 신한옥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공에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이에 맞추어 기업에서 건축하여 인증을 받고 ‘헤이세이 교마치야’라는 이름을 갖고 건축물 판매를 할 수 있음
- 3개월 전에 교토기반 4개의 지역 민간회사에서 견본주택을 건설하여 시민들에게 전시·판매하고 있음



[그림 3-1] 헤이세이 교마치야 견본주택 단지



[그림 3-2] 다양한 유형의 헤이세이 교마치야



[그림 3-3] 지붕단면(좌), 평형별 가격 및 평면(우)



[그림 3-4] 헤이세이 교마치야 내부

2. 교마치야 : 하타케 주택

- 전통적인 교마치야로 두 개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 건물로, 건축당시 건물 전면 1층부분은 약방으로 사용하였으며, 2층과 후면은 주거용도로 사용하였음. 현재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거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음



[그림 3-6] 하타케 주택 내·외부



[그림 3-7] 첫 번째 작은 정원(좌), 안쪽정원(우)

3. 교토 전통적건조물 보존지구 : 산넨자카·니넨자카 지구

- 산넨자카, 니넨자카 지구는 전통적건조물 보존지구로 키요미즈사(清水寺)·高台寺·야사카(八坂) 신사 등의 사찰을 둘러싼 산책로를 따라서 선물(土産)가게·찻집·주택 등이 늘어서 돌층계나 돌담과 함께 교토다운 섬세한 마치나미(町並)를 보여주고 있음. 가로는 직선이나 곡선이 복잡한 상태로 높낮이차이를 돌층계나 느슨한 비탈에서 연결해 맞추는 등 변화가 풍부한 경관을 만들고 있음



[그림 3-8] 산넨자카·니넨자카 지구



[그림 3-9] 산넨자카니넨자카 지구



[그림 3-10] 신축건물

4. 도쿄 근대건축물 보전·활용 및 역사경관마을 사례

1) 마루노우치 지구



[그림 3-11] 마루노우치 지구



동경역사와 마루노우치 지구 전경



동경역사 내부



동경역사 앞 거리



지하에 위치한 호텔 입구

[그림 3-12] 동경역 복원·리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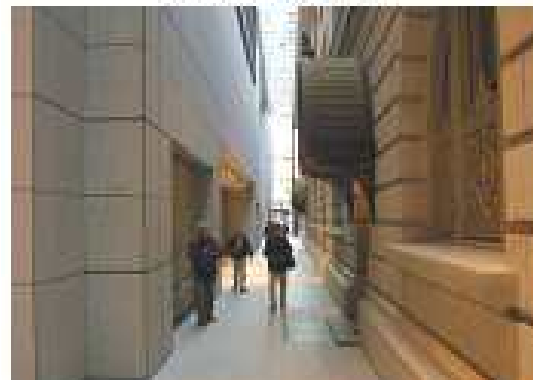
: 1914년 건립된 도쿄의 중앙역으로 5년간의 공사를 통해 2012년 10월 건물의 일부를 보존·복원하고 지하를 고급 호텔로 리노베이션함



인접건물과의 사이공간



구 메이지 생명관



인접건물과의 사이공간



메이지 생명관 입구



내부 엘리베이터

[그림 3-13] 마루노우치 메이지 생명관

: 1934년 세워진 건축물로 일본 최초의 생명보험 회사의 본사로 동일대지 안에 초고층 오피스 빌딩을 개발하였으며,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음

2) 가구라자카 역사경관마을



◁소방호스가 접근 가능한 거리안에 있는 건축물은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건축선후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그림 3-14] 가구라자카 골목길 보전



[그림 3-15]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된 주택



[그림 3-16] 지구단위계획 이전에 건축된 건물

5. 가와고에 쿠라즈쿠리 전통가옥 거리 및 다이쇼로만 유메도리 거리

1) 쿠라즈쿠리 전통가옥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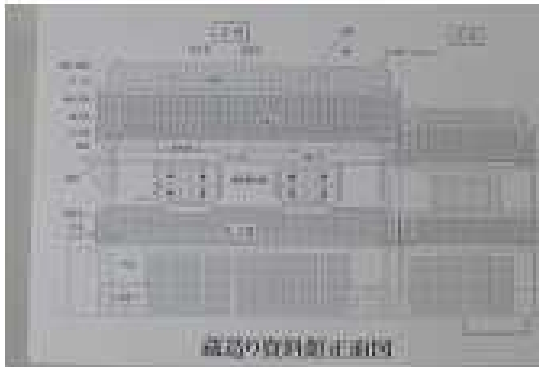
- 에도시대와 메이지시대의 옛 모습이 남아있는 지역으로 도키노카네 종루(국가중요문화재)를 중심으로 전통가옥, 상점 및 박물관 등이 밀집해 있음. 새로운 건축물도 역사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



[그림 3-17] 가와고에 지도



[그림 3-18] 가와고에 전통건축물 '쿠라'



쿠라즈쿠리 가이드라인

[그림 3-19] 쿠라즈쿠리



[그림 3-20]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축된 쿠라즈쿠리의 신축건축물

2) 다이쇼 로만 유메도리 거리

- 다이쇼 시대의 상가 건물과 서양식 건축물이 남아있는 거리로 전통 및 근대건축물과 현대건축물이 어우러져 있으며 각종 상점들이 많아 관광 명소가 되어 있음



[그림 3-21] 다이쇼 로만 유메도리 거리 근대건축물